

# 명절 잇은 선별진료소...의료진 비상 대기

방역 최전선...코로나 확산에 밤낮없이 '고군분투'  
"고향 못 가는 아쉬움있지만 시민안전이 최우선"

"작년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에 남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못 뵈는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검체 채취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로부터 '고생하신다.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을 들으면 큰 힘이 됩니다."

16일 광주 북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만난 간호사 오모씨(26·여)는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 방역 최전선을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올 1월 선별진료소로 파견 온 오 간호사는 " 불과 2년 사이 세상이 많이 변했다"며 "엄마와 함께 송편을 빚던 일이 엇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는 의무화가 됐고, 마치 영화에서 등장할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씁쓸한 마음을 털어냈다.

그는 "코로나19 기간이 계속 길어지

다 보니 간호사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면서 "마침 보건소에서 긴급의료지원단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에 선별진료소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오 간호사는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지만, 하루에 많을 때 1,500여명의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받으러 오시면 사실상 녹초가 된다"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밥을 먹거나 씻을 겨를도 없이 곧바로 잠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별진료소에서 9개월간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진짜 많았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고 싶지만, 코로나 방역 대응이 먼저라는 사명감에 힘이 닿는 데까지 현장을 지키겠다"고 미소지었다.

간호사 박모씨(30)도 "선별진료소에



16일 오후 광주 북구 효곡공영주차장 4층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서 근무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든 적도 많았다"며 "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서로 버팀목이 되면서 힘든 시기를 응원하며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간호사는 이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방역 현장에 남는 것에 대해 보상

을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다"면서 "대신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 내년 설이나 추석에는 시민들 모두가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추석 연휴

도 잇은 채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5일간의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이번 명절이 마지막 고비이길 바라며 코로나19 업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18일부터 22일까지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운영해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코로나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5개구 보건소와 응급진료체계를 가동, '문 여는 병·의원'과 '문 여는 약국'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 20곳과 응급의료시설 4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진료소 9곳, 문 여는 의료기관 817곳·약국 507곳을 지정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의약품 구입에도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검찰, 징역 3년 구형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청탁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직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원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유도매회사 자금 1억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그는 회사 자금 일부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뒤 돌려줬다는 취지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5월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으나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직무 정지 처분 신청을 냈다.

/최환준 기자

## 광주 상무지구 음주 교통사고 '최다'

전남은 순천 연향동

최근 5년간 광주에서는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서, 전남에서는 순천 연향동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에서는 '서구 치평동 케냐콜롬버스상무점 부근(상무지구)'에서 가장 많은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년간 46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95명이 부상(사망자 없음)당했는데, 이는 전국 기준 5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국 최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부근으로, 75건(119명 부상)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1위 외에도 서구 치평동 5·18 기념공원 앞 교차로(2위), 서구 치

평동 계수교차로 부근(3위), 서구 내방동 쌍촌역교차로 부근(4위), 서구 쌍촌동 포레스힐 부근(6위), 서구 치평동 달콤커피 광주시점점 부근(9위) 등이 모두 서구 관내 상무지구 등 유흥가 주변 도로였다.

같은 기간 전남은 순천시 연향동 조은프라자 부근(29건, 44명 부상)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뒤로는 목포시 상동 1113 부근(2위), 목포시 상동 신한은행 목포하당금웅센터지점 부근(3위), 목포시 옥암동 25호광장 부근(4위), 목포시 상동 이로파출소 부근(5위), 목포시 상동 흥부아구점 부근(7위), 목포시 용해동 경찰서사거리 부근(9위) 등 목포 지역이 음주 사고 다발지역에 다수 포진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추석명절 행복나눔 꾸러미

16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인복지관에서 열린 '2021년 추석명절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복지관 임직원 등이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주민 250여명에게 전달할 모듬전, 송편, 약과, 달걀 등으로 명절꾸러미를 포장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가족이 보낸 풍경사진 단서' 수로에 빠진 50대 구조

수로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던 50대 남성이 가족에게 보낸 풍경 사진 덕분에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50)는 지난 14일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산책한다고 집을 나선 뒤 돌연 연락이 두절됐다.

당일 오전 11시께 누나에게 매일동 마을회관과 인근 들녘을 찍은 풍경 사진을 보내온 것이 마지막 연락이었다.

오후 6시까지 귀가하지 않은 김씨를 걱정한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냈고,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풀이 많이 자라 있어 수색은 쉽지 않았다.

이때 김씨가 가족에게 보낸 풍경 사진이 수색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가족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수색에 협조해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40평(전용) <b>2억 5천</b>(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b>4억 5천</b>(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b>9억</b> 매가 <b>7억</b> (용 4억) 월수익 280만 (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b>010-6670-9800</b></p>	<p><b>투자확신/강력추천!</b></p> <p>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b>총 1760평</b>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b>010-6670-9800</b></p>	<p>◆ <b>월수익 750만</b></p> <p>◆ <b>연수익 9천만</b></p> <p>◆ <b>매매 13억</b> (용6억 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격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리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p> <p><b>010-6670-9800</b></p>	<p><b>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b></p> <p>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p> <p>•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 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 최저가 9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p> <p>전남 회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회순군 백야면(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공정)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7천 (10/12)</p> <p>시외 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p> <p><b>062-382-5500</b></p>